R&R 25(2020) 175-206 https://doi.org/10.36365/kukirs.2020..25.175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제2치리서』를 통해 본 한국장로교회 정치체제 개혁을 위한 제언

박경수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역사신학)

Ⅰ. 서론
Ⅱ. 『제1치리서』에서 『제2치리서』까지
Ⅲ. 『제2치리서』의 중심주제와 특징
Ⅳ. 한국장로교회 직제와 정체 개혁을 위한 제언
Ⅴ. 결론

[초록]

본 논문은 장로교주의의 핵심을 담고 있는 스코틀랜드 『제2치리서』의 역사적 배경과 그 내용을 분석하고, 그 정신에 입각해서 한국장로교회의 정치체제 개혁을 위한 제언을 제시한 글이다. 필자가 장로교의 직제와 정치체제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진 이유는 장로교가 개신교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교회에서 최초의 장로교 헌법이라 할 수 있는 스코틀랜드 『제2치리서』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며, 또한 한국장로교회 안에서 교회의 직제와 정치체제에 대한 이해의 대립과 갈등으로 인해 교회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먼저 『제2치리서』가 나오게 된 정치적, 종교적 상황을 살펴본 후에 『제1치리서』가 나온 1560년부터 『제2치리서』가 등장한 1578년까지의 과정을 추적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제2치리서』가 어떤 필연성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규명할 것이다. 그런 다음 교회정치와 세속정치의 관계, 교회의 직제와 그 직무, 교회회의체와 그 역할, 교회개혁의 과제와 목적이라는 제목 아래 『제2치리서』의 핵심 내용을 소개하고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장로교회가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로부터 이어받고 지켜야 할 유산은 무엇인지 성찰하면서, 한국장로교회의 직제와 정체의 개혁에 관한 실천적인 제언을 제시할 것이다.

키워드: 스코틀랜드, 제2치리서, 직제, 정체, 앤드류 멜빌, 한국장로교회

논문투고일 2020.01.18. / 심사완료일 2020.02.18. / 게재확정일 2020.03.04.

Ⅰ. 서론

오늘날 한국교회를 생각할 때 '빛,' '소금,' '희망'이라는 단어보다 답답하고 암담한 생각이 먼저 드는 것이 필자만의 특별한 경우는 아닐 것이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절망의 깊이와 아픔이 더 크다. 한국교회가 정치적으로 심각하게 경도(傾倒)되어 있고, 도덕적으로 신뢰를 받지 못하고, 사회적 영향력은 미미하며, 심지어 종교로서의 기본적인 역할마저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와 비판이, 그저 교회에 적대적인 사람들의 비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지적이라는 점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어떻게 해야 한국교회가 빛과 소금과 희망의 전달자가 될 수 있을 것인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부끄럽지 않고 당당할 수 있을 것인지, 교회가 전하는 복음의 가치가 올바로 전해질 수 있을 것인지 고심하게 된다. 근본적인 방향과 가치가 새롭게 설정되지 않고서는, 또한 구조적인 개혁과 변화가 없이는 요원한 일이다. 그렇다면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할까라는 물음 앞에서 필자는 교회 정치체제의 개혁이라는 작은 화두를 던지고자 한다.

한국교회의 개혁 의제들을 말할 때 항상 등장하는 것이 정치체제의 문제이다. 특별히 필자는 한국장로교회를 중심으로 교회 정치제제의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한국교회에서 장로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70%가 넘을 정도로 압도적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필자가 장로교회의 목사요 신학자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오늘 한국장로교회 안에서 목사와 장로가 갈등하고, 당회와 안수집사들이 분열하여 교회의 평안이 깨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과연 목사, 장로, 집사는 어떤 사람들이며,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조차도 분명하지 못한 현실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역사상 최초의 장로교회 국가였던 스코틀랜드교회의 교회헌법인 『제2치리서』(1578)를 살펴보면서,[1] 장로교회가 처음 출발할 때 가졌던

---

* 이 논문은 2020년 장로회신학대학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1 『제2치리서』가 장로교회 직제와 정치체제에서 갖는 역사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장로교회가 개신교의 대세인 국내에서 거의 연구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의외이다. 국내의 선행 연구논문으로는 이승구, "스코틀란드 교회 『제2치리서』(1578)에 나타난 장로교회의 모습," 「신학정론」

원칙과 기준이 무엇이었는지를 돌아보고, 오늘 한국장로교회가 이어받고 지켜야 할 유산은 무엇인지 또 한국장로교회의 정치체제의 방향성에 대해서 숙고하고자 한다. 한국장로교회 안에도 매우 다양한 교단이 있고 정치체제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으므로 장로교회 전체를 포괄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필자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에 초점을 맞추어 교회 직제와 정체의 개혁 방향을 제안하도록 하겠다.

II. 『제1치리서』에서 『제2치리서』까지

1559년 스코틀랜드로 귀국한 존 녹스가 중심이 되어 1560년 작성된 『스코틀랜드신앙고백서』와 『제1치리서』는 스코틀랜드를 프로테스탄트 국가로 세우는데 결정적인 분기점이 되었다.[2] 『제1치리서』는 1560년 스코틀랜드교회의 첫 번째 총회에서 승인되었고, 1561년 1월 27일 귀족들의 회의체인 신분위원회에서 채택되었지만, 의회의 승인을 받지는 못하였다. 여전히 장로교회의 정치체제가 로마가톨릭교회의 구체제를 온전히 대체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이며 경제적인 여건이 좀 더 무르익어야 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제1치리서』가 제시된 1560년부터 보다 온전한 형태의 장로교회 헌법인 『제2치리서』가 나온 1578년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검토해 보자.

31/2 (2013), 188-224가 거의 유일하고, 김중락의 책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사』 (서울: 흑곰북스, 2017) 13장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국외의 선행 연구물로는 James Kirk, *The Second Book of Discipline* (Edinburgh: Covenanters Press, 1980)가 있는데, 특히 150쪽이 넘는 『제2치리서』에 관한 그의 해설(3-158쪽)은 독보적이다. 그 밖에도 W. Stanford Reid, "The *Book of Discipline*: Church and State in the Scottish Reformation,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Vol. 35 (1972/1973), 35-44; Alexander F. Mitchell, *The Scottish Reformation* (Edinburgh: William Blackwood and Sons, 1900); Janet G. MacGregor, *The Scottish Presbyterian Polity: A Study of its Origins in the Sixteenth Century* (Edinburgh: Oliver and Boyd, 1926)가 중요한 2차 자료들이다.

2 『제1치리서』의 배경과 내용은 박경수, "스코틀랜드 『제1치리서』에 나타난 장로교회 정치체제의 근간," 「신학논단」 97 (2019), 41-70쪽을 참조하라.

1. 정치적 배경[3]

스코틀랜드에서 1560년부터 1578년까지 더 멀리는 1592년 소위 '황금법'(Golden Act)으로 장로교회가 공고해지기까지 왕, 귀족, 교회지도자들 사이에 긴 투쟁이 이어졌다. 스코틀랜드에서 장로교회의 성격을 규명한 『제1치리서』가 채택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1561년 8월 프랑스로 시집을 갔던 메리가 남편 프랑수아 2세와 사별하고 고국으로 돌아와 왕의 자리에 올랐다. 어머니를 통해 프랑스 기즈(Guise) 가문의 혈통을 물려받은 로마가톨릭교도인 메리는 자연스럽게 교회개혁자 존 녹스를 비롯한 프로테스탄트 귀족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여왕은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을 공식적으로는 인정하면서도 사적으로는 왕궁에서 로마가톨릭의 미사를 거행하였다. 여왕이 머무는 홀리루드 왕궁과 녹스가 목회하던 세인트자일스 교회는 불과 1km의 거리를 두고 같은 도로 위에 자리 잡고 있었다. 1561년부터 1563년까지 여성의 통치권, 국가에 대한 저항권, 로마교회의 정당성 등의 주제를 두고 여왕과 녹스 사이에 여러 차례 거친 설전이 벌어졌다. 이 와중에서 귀족들은 자신들의 권리와 특혜를 지키기 위해 그때마다 입장을 달리하면서 종교개혁의 과정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의 과정을 얽히고 설키게 만든 또 다른 요인이 여왕 메리의 결혼 문제였다. 1565년 메리가 로마가톨릭 귀족인 레녹스 백작 매튜 스튜어트의 아들인 단리 경(Henry Stewart, Lord Darnley)과 두 번째 결혼을 하자 프로테스탄트 귀족들은 스코틀랜드를 다시 로마가톨릭으로 돌리려는 음모로 받아들였다. 실제로 메리도 그런 희망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맞서 프로테스탄트 귀족들은 왕실에 대항하는 군대를 일으켰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패함으로써 오히려 프로테스탄트 세력의 약화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1567년 여왕 메리가 또 다른 로마가톨릭 귀족인 보스웰 백작(James Hepburn, Earl of Bothwell)과 세 번째 결혼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프로테스탄트가 새롭게 득세할 기회를 얻었다. 왜냐하면 메리가 보스웰과 공모하여 남편 단리 경을 살해하는 일에 연루되었다는 의심을 샀기 때문이다. 결국 프로테스탄

3 김중락,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사』, 123-162; 박경수, "존 녹스: 하나님의 나팔수," 『개혁교회, 그 현장을 가다』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8), 215-238을 참조하라.

트 진영이 득세하면서 보스웰은 망명을 떠나고 여왕은 폐위되었다. 메리와 단리경 사이에서 태어난 갓 돌을 지난 제임스가 1567년 7월 29일 제임스 6세로서 왕위에 올랐고, 그 즉위식 때 녹스가 설교를 맡았다.

제임스 6세가 너무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섭정 정치가 시작되었다. 제임스 6세가 왕이 된 1567년부터 『제2치리서』가 나오는 1578년까지 섭정 정치가 이어졌는데, 이 동안 다스렸던 네 명의 섭정은 모레이 백작 제임스 스튜어트(1567.8.22-1570.1.23), 레녹스 백작 매튜 스튜어트(1570.7.22-1571.9.4), 마르 백작 존 어스키네(1571.11.18-1572.1.28), 모턴 백작 제임스 더글라스(1572.11.24-1578.3.10)였다. 첫 번째 섭정이었던 모레이 백작과 네 번째 섭정인 모턴 백작은 프로테스탄트 귀족이었지만, 나머지 두 사람 레녹스 백작과 마르 백작은 로마가톨릭교도였다. 이것은 스코틀랜드가 프로테스탄트 국가로 돌아섰지만 아직 완전히 체계를 갖추지는 못했음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폐위되어 옥에 갇혀 있던 메리 여왕이 1568년 탈출하여 잉글랜드로 피신하면서 로마가톨릭 귀족 세력뿐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로 여왕의 편에 선 세력들이 합세하여 프로테스탄트 귀족들과 대치를 이어갔다. 그 와중인 1572년 11월 24일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의 나팔수 존 녹스가 숨을 거두었다.

2. 종교적 배경

종교적인 측면에서 『제1치리서』와 『제2치리서』 사이에 가장 치열한 논쟁의 초점은 주교제였다. 녹스를 비롯한 『제1치리서』의 저자들은 프로테스탄트 목회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전국 방방곡곡에 참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찰감독(superintendent)이라는 직제를 채택하였다.[4] 시찰감독은 개(個)교회에만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넓은 지역을 순회하면서 여러 교회들을 돌보고, 목회자와 목회현장을 살피는 역할을 감당하는 순회설교자였다. 시찰감독은 사실상 로마가톨릭교회의 주교와는 다른 성격을 지닌 직제였고 또 실제

---

4 James K. Cameron, *The First Book of Discipline* (Edinburgh: The Saint Andrew Press, 1972), 115-128; 박경수, "스코틀랜드 『제1치리서』에 나타난 장로교회 정치체제의 근간," 52-55쪽을 참조하라.

로 시찰감독에 선출될만한 합당한 사람이 부족하여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제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에서부터 로마교회의 잔재로 오해를 샀다. 시찰감독이라는 직제를 둔 것 자체가 주교제를 인정한 것이라는 인상을 주었던 것이다.

제임스 6세 통치 시기 마지막 섭정이었던 모턴 백작은 잉글랜드의 도움을 받아 메리 여왕 세력을 완전히 소탕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면에서만 아니라 종교적인 차원에서도 친(親)잉글랜드 정책을 폈다. 따라서 모턴은 주교제도에 대해서도 호의적이었다. 모턴 직전 섭정이었던 마르 백작은 1572년 1월 12일 60여 명의 교회 대표들을 리스에 소집하여 국왕이 교회의 승인을 받아 주교를 임명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5] 이를 리스협약(Concordat of Leith)이라 부른다. 모턴 백작도 이 협약을 그대로 받아들여 시행하고자 하였다. 녹스를 비롯한 교회지도자들은 리스협약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제도 자체를 이전 로마가톨릭교회의 체제로 되돌리려는 반동적인 조치라며 거세게 반발하였다. 내용적으로 보아도 주교제의 재도입은 "교회 문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 거부, 세속 문제에 목회자의 공식적 관여 거부, 어떤 목회자가 동료 목회자들 위에 군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사역자 사이의 동등성에 대한 강조, 주교가 구체적인 한 회중에게 매이지 않고 제 마음대로 방임되어 있는 주교제도의 관례에 대한 거부"[6]라는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의 기본 정신과 원칙에 위배되는 심각한 문제였다.

게다가 섭정과 귀족들이 주교제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실제적인 이유는 경제적인 이익과 연관되어 있었다. 권력자들은 허울뿐인 주교를 세움으로써, 교회 소유의 토지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성직자에게 제공하는 성직록을 자신들의 주머니에 채우려는 목적으로 더욱 더 주교제에 집착했다. 왜냐하면 국왕의 자문기구인 추밀원은 옛 체제에서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혼란을 막기 위해, 로마가톨릭교회 성직자들의 성직록 중 1/3은 왕실과 교회를 위해 사용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성직자들이 살아 있는 동안 그들의 생활비로 배정하였다.

---

5 『제2치리서』의 본문 11장에서 리스협약이 1571년이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이는 달력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새로운 역법에 따라 계산하면 1572년 1월이다. 옛 달력(舊曆)에서는 새해가 3월 25일에 시작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1572년 1월도 1571년으로 표기한 것이다.

6 Jurgens Johannes van Wyk,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Offices according to the Presbyterian Tradition of Scotland*, Kachere Theses no. 7 (Zomba: Kachere Series, 2004), 42.

그러나 실제로는 왕실이 1/3의 몫 전체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기 때문에 교회는 별다른 혜택을 누릴 수도 없었다.[7] 따라서 국왕파와 귀족들은 자신의 입맛에 맞는 허수아비 주교, 즉 '툴칸 주교'[8]를 세우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을 챙기고자 했던 것이다. 리스협약에서 주교제를 채택한 진짜 이유는 교회의 안정이 아니라 교회의 토지와 재산을 차지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이처럼 세속적인 경제적 이유와 맞물린 주교제의 도입에 대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총회는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한시적인 직제인 시찰감독이 있는 지역에 리스협약에 따라 주교가 임명된 경우에는 주도권을 둘러싸고 갈등이 일어나기도 했고, 로마가톨릭의 주교제 도입으로 개혁적인 장로교회의 정체성이 흔들리면서 스코틀랜드교회는 혼란에 빠졌다. 따라서 이런 혼란을 제거하고 교회를 보다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새로운 교회 정치체제의 구축과 확립이 요청되었다. 이런 필요성에 따라 연구되기 시작했고 마련된 것이 바로 스코틀랜드 『제2치리서』이다. 따라서 스코틀랜드 교회사를 연구한 버레이는 "『제2치리서』는 결국 1572년 이후 섭정 모턴 백작이 추구한 교회 정치체제에 대한 완전한 역전을 요구한 것이며, 계속되는 총회는 자신의 권위로 그 계획을 실행하고자 하였다."[9]고 평가했고, 커크 또한 "『제2치리서』는 전체적으로 보아 1572년 리스협약에 만족하지 못하는 교회가 만들어 낸 결과물이었다."[10]고 말한다.

3. 『제2치리서』 작성 과정

리스협약에 반대하여 장로교주의를 분명하게 표명해야 할 책임을 맡은 인물은 앤드류 멜빌(Andrew Melville)이었다.[11] 김중락의 평가처럼 "스코틀랜드

---

7 Janet G. MacGregor, *The Scottish Presbyterian Polity*, 99.

8 김중락,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사』, 167: "툴칸(Tulkan)은 어미 소로부터 더 많은 젖을 짜내기 위해 죽은 송아지의 가죽 속에 북데기를 집어넣어 산 새끼로 보이게 한 것, 즉 허수아비 송아지를 의미한다. 귀족들이 허수아비 주교들을 이용해 이득을 챙기고 있음을 고발하는 말이다."

9 J.H.S. Burleigh, *A Church History of Scotland*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60), 201.

10 James Kirk, *Patterns of Reform: Continuity and Change in the Reformation Kirk* (London: T&T Clark, 1989), 361.

11 앤드류 멜빌(1545-1622)은 1545년 몬트로스 부근 발도비(Baldovie)에서 태어났다. 세인트앤드루스 대학을 졸업한 후 1564년 프랑스로 건너가 파리와 푸아티에에서 수학하였다. 1569년

종교개혁의 첫 단추를 끼우고 장로교의 발판을 마련한 인물이 존 녹스였다면, 이를 완벽하게 보완하고 완성시킨 사람은 그의 제자 앤드류 멜빌이었다."[12] 스위스 제네바아카데미에서 가르치다가 1574년 스코틀랜드로 돌아온 멜빌은 섭정 모턴의 주교제 추진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였다. 총회는 1575년 주교제도가 과연 스코틀랜드교회에 필요한지를 논할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주교제 옹호 입장을 가지고 있던 세 명(George Hay, John Row, David Lindsay)과 주교제 반대 입장을 가진 세 명(John Craig, James Lawson, Andrew Melville)을 위원으로 임명하였고 연구와 토론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13] 멜빌은 반(反)주교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 안에서 즉각적으로 지도력을 인정받았다. 개혁교회의 요람인 제네바에서 칼뱅의 후계자인 베자와 가까이 지내면서 교제했던 멜빌은 개혁주의 사상을 논리적으로 전하면서, 스코틀랜드 개혁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을 열정적으로 제시하였다. 멜빌은 국왕이 주교를 임명하는 것은 세속권과 교회권의 구별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주교가 말씀과 성례의 목회를 담당하지도 않으면서 목회자들 위에 군림하는 것은 사역자들의 동등성이라는 개혁교회의 기본 원칙에 배치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마침내 1576년 총회는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양떼와 교회를 돌보지 않는 주교들을 기소하였다. 또한 시찰과 심방의 직무와 권한이 주교나 시찰감독 개인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속한 것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총회의 결의를 확인한 섭정 모턴은 결국 교회가 리스협약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지

스위스 제네바로 갔고 제네바아카데미 인문학부 교수로 있다가 1574년 스코틀랜드로 귀국하였다. 1574-80년까지 글래스고 대학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교육개혁을 추진하였다. 그의 개혁은 소위 '새로운 설립'(nova erectio)라 불릴 만큼 혁신적이었고, 그리하여 멜빌은 '글래스고 대학의 두 번째 설립자'라 불린다. 1580년 멜빌은 세인트앤드루스 대학으로 옮겨 거기서도 '새로운 토대'(nava fundatio)라 불리는 개혁을 추진하여 교육체계를 완전히 혁신시켰다. 그는 1578년 4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총회장에 선출되어 『제2치리서』를 통과시켰다. 멜빌에 대한 최근의 연구를 위해서는 세인트앤드루스 대학의 Roger A. Mason과 글래스고 대학의 Steven J. Reid가 함께 편집한 *Andrew Melville(1545-1622): Writings, Reception, and Reputation* (Surrey: Ashgate Publishing Limited, 2014)을 참고하라.

12 김중락,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사』, 170.

13 David Calderwood, *History of the Kirk of Scotland*, III, ed. Thomas Thompson (Edinburgh: Wodrow Society, 1843), 355; John Row, *The True History of the Kirk of Scotland from 1558 to 1637* (Edinburgh: Wodrow Society, 1842), 355.

않다면, 개정안을 마련하라고 총회에 양보하였다. 이에 따라 1576년 4월 총회는 새로운 교회 정치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22인 위원회를 조직하였는데, 커크는 이 위원회의 설립을 『제2치리서』 작성의 직접적인 출발점으로 간주한다.[14] 동시에 커크는 멜빌이 치리서 작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제2치리서』는 한 개인의 작품이 아니라 위원회의 공동작업의 결과였음을 강조한다.[15] 칼더우드도 1576년 4월 결성된 위원회의 대표가 멜빌이 아니라 글래스고의 데이비드 커닝햄(David Cunningham)이었고, 모인 장소도 그의 집이었음을 지적하면서 『제2치리서』를 멜빌 개인의 것처럼 말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였다.[16] 『제2치리서』는 많은 사람이 함께 참여한 위원회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치열하게 논의된 후에 나온 집단지성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녹스를 포함한 여섯 명의 저자들이 단기간에 만들어낸 『제1치리서』와 분명한 차별성을 지닌다. 위원회는 세 달 이상의 논의를 거쳐 1576년 10월 총회에 초안을 제출하였지만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의 필요성에 따라 최종 결정은 추후로 미루어졌다.

총회의 위탁을 받은 위원회는 의견수렴을 거친 새로운 초안을 1577년 4월 총회에 다시 제출하였고, 총회는 항목 하나하나에 대한 설명을 저자에게서 직접 듣고 꼼꼼하게 점검하며 검토하였다. 하지만 총대들이 내용에 대한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총회는 11명의 대표에게 위임하여 개정안을 다가오는 10월 총회에 제출하도록 하였다.[17] 이런 과정을 거쳐 마침내 1577년 10월 25일 총회 석상에서 위임 대표단이 개정안을 설명하였고, 총회는 개정안 사본을 섭정에게 보내기로 결의하였다. 한편 섭정 모턴은 대리인을 통해 치리서에 대한

---

14 James Kirk, *The Second Book of Discipline*, 46. 커크는 이어서 22명의 면면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15 James Kirk, *The Second Book of Discipline*, 45-46: "『제2치리서』의 저작권을 앤드류 멜빌 한 개인에게 돌리려는 주장은 역사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제2치리서』는 『제1치리서』처럼 여섯 명의 결과물도 아니고, 총회의 지침에 따라 매우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개정하며 활동한 30명 이상의 목회자들로부터 나온 공동의 산물이다."

16 David Calderwood, *History of the Kirk of Scotland*, III, 368.

17 David Calderwood, *History of the Kirk of Scotland*, III, 380-82. 칼더우드에 따르면 11명의 위원은 Robert Pont, James Lawson, the Laird of Dun, Alexander Arbuthnet, Andrew Melville, John Craig, Andrew Hay, George Hay, John Row, David Lindsay and John Duncansone이다.

42개의 질문을 총회에 제시하였다. 총회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17명의 위원을 임명하여 치밀하게 준비하였다. 커크가 지적한 것처럼 섭정이 제기한 이와 같은 질문은 위원회가 새로운 교회정치의 조항들을 더욱 세밀하게 마련하도록 자극한 측면도 있다.[18] 이처럼 여러 단계의 세밀한 점검 과정을 거쳐 『제2치리서』의 편집이 이루어졌다. 스코틀랜드교회는 1578년 4월 총회에서 『제2치리서』를 공식적으로 채택하였고, 새로운 교회정치 체제를 담은 치리서를 국왕과 그 자문기관인 추밀원에 제출하였다. 이때 총회의 의장이 앤드류 멜빌이었다. 하지만 총회가 『제2치리서』를 교회헌법으로 승인하고 모든 목회자가 치리서를 받아들이도록 법령을 제정한 것은 1590년 8월이었다. 또한 『제2치리서』는 한참 동안 필사본 형태로만 유통되다가, 1621년에야 『제1치리서』와 함께 묶여 정식으로 출판되었다.[19]

Ⅲ. 『제2치리서』의 중심주제와 특징

『제2치리서』는 전체 1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20] 먼저 1장에서 교회정치와 세속정치의 차이점에 대해 다룬다. 교회와 국가 사이의 관계 설정은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 운동에 있어서 항상 예민하고 중요한 주제 중 하나였다. 스코틀랜드

---

18 James Kirk, *The Second Book of Discipline*, 48. 섭정이 제기한 질문은 사역자들 사이의 차별성, 장로와 집사의 선출, 출교의 행사, 시찰과 주교구의 문제, 교회법정의 권한, 총회의 소집과 구성, 교회법과 세속법의 혼동, 교회의 재산, 성직록, 헌금과 분배 등 교회정치에서 핵심적인 주제들이었다.

19 James Kirk, *The Second Book of Discipline*, 154.

20 『제2치리서』(1578)의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1장 교회와 그 정치체제 일반, 그리고 국가 정치체제와의 차이점에 관하여. 제2장 교회 정치체제의 구성요소와 그 관리를 맡은 직분자들에 관하여. 제3장 교회 직분자들이 그 직무에 임명되는 방식에 관하여. 제4장 각각의 직분자들, 제일 먼저 목회자에 관하여. 제5장 교사와 그 직무, 그리고 학교에 관하여. 제6장 장로와 그 직무에 관하여. 제7장 장로회, 회의체, 그리고 치리에 관하여. 제8장 집사와 그 직무, 교회의 마지막 통상적인 직임에 관하여. 제9장 교회의 재산과 그 분배에 관하여. 제10장 교회 내에서 그리스도인 행정관의 직무에 관하여. 제11장 우리가 개혁하기 원하는 현 교회에 잔존하는 폐습들에 관하여. 제12장 우리가 요구하는 개혁의 구체적인 항목들에 관하여. 제13장 종교개혁이 모든 신분의 사람들에게 끼칠 유익에 관하여.

교회가 1578년 4월 총회에서 『제2치리서』를 채택한 직후인 1578년 12월 22일부터 29일까지 스털링 성에서 치리서의 내용을 단어 하나하나까지 세심하게 주목하면서 점검하고 토의하기 위한 특별 회의가 개최되었다. 특이한 사항은 제1장 즉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다루는 항에 대한 논의에만 삼일이 걸렸을 만큼 세속정부와 교회정치의 관계 설정이 큰 숙제였다.[21] 이어서 『제2치리서』는 2장과 3장에서 교회의 직분과 그 직무에 임명되는 방식에 관하여 다룬 후에, 4장에서는 목회자, 5장에서는 교사와 학교, 6장과 7장에서는 장회와 장로회를 비롯한 회의체의 치리에 관하여, 8장과 9장에서는 집사와 집사가 맡는 직무인 교회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장로교회의 사중직제라 불리는 목사, 교사, 장로, 집사와 그 역할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10장에서는 그리스도인 행정관의 직무를 다룸으로써 1장을 보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11장에서 13장까지 스코틀랜드교회의 폐습이 무엇인지, 어떤 점들을 개혁해야 하는지, 교회개혁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힘으로써 『제2치리서』가 교회정치 체계의 청사진인 동시에 교회개혁의 나침반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1. 교회정치와 세속정치의 관계

『제2치리서』는 가시적 교회에 대한 정의로부터 시작한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로, 혹은 "경건한 자들만이 아니라 줄곧 겉으로만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위선자들까지도 섞여 있는 단체이자 회합"으로, 혹은 "경건한 자들과 선택받은 자들"로, 혹은 "진리를 고백하는 회중 가운데서 영적인 역할을 행사하는 사람들"로 정의된다.[22] 교회를 넓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

21 스털링 대회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David Calderwood, *History of the Kirk of Scotland*, III, 433-442; James Kirk, *The Second Book of Discipline*, 245-253을 참고하라.

22 『제2치리서』의 본문은 David Calderwood, "The Second Book of Discipline," *History of the Kirk of Scotland*, III, 529-55를 보라.(이하 Second Book of Discipline으로 표기할 것이다) *Second Book of Discipline*, 529. 본고에서는 이 본문을 현대의 문법, 철자, 구두점에 맞춰 편집하여 1993년 Presbyterian Heritage Publications에 펴낸 현대어 본문을 참조하였다. 『제2치리서』에 대한 비평적 본문에 관심을 가진 독자라면 James Kirk, *The Second Book of Discipline*, 159-244를 참고하라.

믿는 모든 사람으로, 좁게는 영적 직무를 맡은 사람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어서 교회의 통치와 권한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정치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명된 교회 구성원들에 의해 행사되는 영적 통치의 질서 혹은 형식"으로 규정된다.[23]

『제2치리서』는 교회의 권한과 정치체제는 세속 정부의 그것들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고 말한다. 우선 세속 정부는 왕과 군주를 우두머리로 두지만, 교회에서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왕이자 통치자이다. 어떤 인간도 교회의 머리라는 칭호를 찬탈할 수는 없다.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영적인 왕이며, 모든 사람들은 봉사자, 제자, 종이다. 『제2치리서』는 계속하여 세속의 행정관과 교회의 목회자의 차이를 자세하게 열거한다.[24] 이처럼 "칼의 권세"인 세속 권력과 "열쇠의 권세"인 교회 권력은 본성과 내용의 면에서 분명히 다르며, 따라서 권한의 행사 방식과 범위에서도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속의 권력과 교회의 권한은 "둘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바르게 사용된다면 하나의 동일한 목표, 즉 하나님의 영광을 증진시키고 경건하고 선량한 백성을 만든다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25] 따라서 두 권력은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세속권력은

---

23 *Second Book of Discipline*, 530.

24 *Second Book of Discipline*, 531-32: "행정관은 백성들 가운데 외적인 평화와 안녕을 위해 외적인 것들을 명하는 반면, 목회자는 오직 양심과 관련될 때에만 외적인 것들을 다룬다. 행정관은 외적인 것들과 사람들 앞에서 행해진 행동만 다루지만, 영적인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양심과 관련하여 내적인 마음가짐과 외적인 행동 모두를 판단한다. 세속 행정관은 칼과 다른 외적인 방편들을 써서 복종을 구하고 또 얻지만, 목회자는 영적인 칼과 영적인 방편으로 그렇게 한다. 행정관은 설교하거나 성례를 거행할 필요가 없고, 교회의 치리를 실행할 필요도 없으며, 어떤 규정을 어떻게 행해야 한다고 지시할 필요도 없다. 단지 그들은 목회자들에게 말씀에 명해진 규정을 지키라고 명하고, 위법자들을 세속적인 방식으로 처벌해야 한다. 목회자들은 세속 사법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관들에게 그 사법권을 말씀에 따라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야 한다. 행정관은 교회의 사법권을 보조하고, 유지하고, 강화해야 한다. 목회자들은 세속적인 일에 관여함으로써 자신들의 고유한 직무를 등한시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말씀에 합하는 모든 일에서 영주들을 도와야 한다. 목회자들이 외적인 일에서 죄를 범했을 때 행정관의 판단과 처벌에 복종해야 하듯이, 행정관들 또한 양심과 종교의 문제에서 죄를 지었을 때는 교회의 치리에 복종해야 한다."

25 *Second Book of Discipline*, 530.

영적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직무를 행하라고 명해야 한다. 영적인 지도자들은 그리스도교인 행정관에게 정의롭게 다스리고 악을 벌하며 관할지역 안에서 교회의 자유와 안녕을 지키라고 요구해야 한다."[26] 또한 "교회의 목회자와 다른 직분자들이 세속 행정관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처럼, 행정을 맡은 사람들도 영적으로는 교회에 복종해야 하고 교회의 통치에 따라야 한다."[27] 이처럼 행정관과 목회자는 서로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와 같은 교회와 국가의 구별 원칙은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중요한 원리이며, 『제2치리서』의 근본정신이다. 메리 여왕과 제임스 6세와 섭정들의 얽히고설킨 정치상황 안에서 국가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교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와 국가 권력의 구별과 차이를 분명하게 설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출발점이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제2치리서』는 교회 내에서 그리스도인 정치인의 직무와 역할에 대해 10장에서 다시 한 번 다루고 있다. 세속의 정치인을 "교회를 풍성하게 하는 자"라 부르면서 교회에 해가 되는 것들에 대항하여 "교회를 유지하고, 육성하고, 지지하고, 옹호해야" 할 임무를 갖는다고 말한다.[28] 행정관은 교회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돕고, 교육과 구제와 같은 사역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살피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법을 만들어 교회를 지키며, 교회에 속한 영적인 열쇠의 권세를 침범하거나 빼앗으려고 해서는 안 되며, 목회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권위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29] 16세기 후반 스코틀랜드의 정치상황 속에서 정치지도자들이 교회의 권위를 침해하거나 교회개혁에 걸림돌로 작용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데 협력해야 함을 지적하는 대목이다.

2. 교회의 직제와 그 직무

『제2치리서』는 2장에서 9장까지 교회의 직제와 각각의 직무에 대해 많은

---

26 *Second Book of Discipline*, 531.
27 *Second Book of Discipline*, 531.
28 *Second Book of Discipline*, 545.
29 *Second Book of Discipline*, 545-46.

분량을 할애하여 다루고 있다. 교회의 직제는 크게 세 가지, "교리, 치리, 분배"를 담당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각각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목사, 장로, 집사"이다.[30] 이들은 모두 주님의 몸인 교회의 봉사자들 혹은 사역자들이다. 이들은 "각자 기능에 따라 동등한 권한"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형제애적 상호 합의를 통해" 교회를 섬기고 다스려야 한다.[31] 『제2치리서』는 "목사 혹은 감독, 교사, 장로, 집사"의 네 가지 직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언제나 있어야 하는 통상적인 직무라고 규정한다. 이 네 직무는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서든 교회에는 영속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

이어서 3장에서는 교회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임명되는 방식에 대해 다룬다. 교회의 직무를 맡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내적 소명과 교회의 부름이라는 외적 소명이 확인되어야 하며, 둘째 장로회의 검증과 선택, 셋째 회중의 동의와 함께 공적이고 합법적인 선출이 있어야 한다. 특별히 교회의 직무를 맡을 사람을 검증할 때 두 가지 기준이 있었는데, 건전한 신앙과 경건한 삶이었다.[32] 이것은 칼뱅의 제네바 교회헌법이 목회자의 자격 조건으로 내세웠던 것과 동일한 기준이다. 충분한 검증과정을 거친 사람을 직분자로 임직할 때에는 금식, 기도, 장로들의 안수를 통해 세웠다. 그리고 교회의 모든 일꾼이 명심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덕"이다.[33]

『제2치리서』는 4장에서 목회자에 대해 말한다. 목사, 감독, 목회자, 장로 등의 다양한 호칭으로 불리는 사람은[34] 특정한 회중을 맡아 돌보아야 하며, 정당하게 선출된 이후에는 노회나 총회의 허락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역지를 떠나서는 안 된다. 목회자의 역할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둘째 말씀에 따라 성례를 거행하며, 셋째 자신이 돌보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넷째

---

30 *Second Book of Discipline*, 532.
31 *Second Book of Discipline*, 533.
32 *Second Book of Discipline*, 533-34.
33 *Second Book of Discipline*, 535.
34 *Second Book of Discipline*, 535: "이들은 때때로 목사라 불리는데, 회중들에게 꼴을 먹이기 때문이다. 또 때로는 감독이라 불리는데, 자신들에게 맡겨진 양떼를 돌보기 때문이다. 또 그들의 섬김과 사역 때문에 목회자라 불리기도 한다. 또 그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책무인 영적 통치를 실행해 나가면서 필히 갖춰야 할 진중함 때문에 장로라고 불리기도 한다."

회중의 삶의 방식을 감독하고, 다섯째 교회에 부여된 열쇠의 권세에 따라 치리를 행하는 것이다.[35]

5장에서는 교사의 직무를 논하는데[36], 교사는 주로 성경을 해석하는 책임을 맡고 있기는 하지만, 그들도 목사와 장로들과 함께 장로의 일원으로서 교회 법정에 앉는 것이 허락된다.[37] 교사의 직무는 "신자들에게 교훈을 주고 건전한 교리를 가르치는 것, 복음의 순수성이 무지와 악한 견해로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38] 성경의 뜻을 풀어 전달해 준다는 점에서 목사의 역할과 유사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교사의 가르침은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설교와는 차이가 있다. 또한 성례의 거행이나 교회의 예식을 주관하지 못한다는 점도 목사의 역할과는 구별되는 점이다.[39] 교사는 오늘날의 직무로 보자면 신학교 교수에 해당하는 직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6장은 장로의 직무를 밝히고 있는데 장로직도 목사직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직무이다. 장로의 직무는 "그들에게 맡겨진 양떼를 공적으로든 사적으로든 부지런히 살펴서 신앙과 행습에 어떠한 폐해도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40] 즉 "목사와 교사가 가르치는 일과 말씀의 씨를 뿌리는 일에 부지런해야 하는 것처럼, 장로는 사람들 가운데 말씀의 열매가 맺히도록 세심히 살펴야 한다."[41] 보다 구체적으로 장로는 성만찬에 합당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목사를 도와 병자들을 심방하고, 당회, 노회, 총회의 회의에 참석하며, 복음서의 규칙에 따라 회중을 훈계하며, 치리를 실행함으로써 선한 질서를 세우야 할 책임을 진다.[42]

8장과 9장에서 다루는 집사의 직무도 목사나 장로의 직무와 마찬가지로 영속

---

35 *Second Book of Discipline*, 535-36.
36 *Second Book of Discipline*, 537: "교사는 선지자, 감독, 장로, 교리문답과 신앙의 기초를 가르치는 선생인 교리문답사로 불릴 수 있다."
37 *Second Book of Discipline*, 537: "장로로서의 교사는 교회를 다스리는 일에서 목사를 돕고, 모든 회의체에서 자신의 형제인 장로들과 협력해야 한다. (교회 일에서 유일한 판관인) 말씀에 대한 해석이 교사의 책무로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38 *Second Book of Discipline*, 537.
39 *Second Book of Discipline*, 537.
40 *Second Book of Discipline*, 538.
41 *Second Book of Discipline*, 538.
42 *Second Book of Discipline*, 538.

적이고 영적인 것이다. "집사는 성도들의 구제금과 교회의 재산을 모으고 분배하는 사람들"이다.[43] 목사, 장로, 교사가 교회의 다양한 회의체에 참석하여 치리와 관계된 법적인 책임을 진다면, 집사는 교회의 재산과 재정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2치리서』에서 집사가 치리와 관계된 회의체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점은 『제1치리서』와의 차이점이기도 하다. 『제1치리서』는 집사가 교회의 치리를 관장하는 당회에 참석하는 것을 허용하였지만, 『제2치리서』는 집사를 치리와 사법적 역할에서 제외시킨다.[44] 특별히 주목할 만한 것은 『제2치리서』가 초대교회의 전통과 제네바교회의 원칙을 따라 교회재산 사용의 네 가지 용도를 명확하게 규정한 점이다. "첫 번째는 목사 혹은 감독의 생계와 접대를 위해, 두 번째는 장로와 집사와 모든 성직자들을 위해, 세 번째는 가난한 자, 병든 자, 이방인을 위해, 그리고 네 번째는 교회의 유지와 다른 업무, 특히 특별한 경우를 대비해서이다."[45] 오늘날 교회의 헌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의 지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3. 교회 회의체와 그 역할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회의체를 통한 교회 정치제도라고 할 수 있다. 장로교회 정치체제에는 네 종류의 회의체가 있다. 개별교회의

---

43 *Second Book of Discipline*, 543.

44 James K. Cameron, *The First Book of Discipline*, 168: "만약 범죄가 공개적이고, 간음, 술주정, 싸움, 비속한 욕설이나 저주와 같이 가증스러운 범죄일 때는 범죄자를 목회자, 장로, 집사들 앞에 소환하고, 그의 죄와 위법행위를 분명히 드러내 밝혀서, 그 자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마음 아프게 했는지, 그리고 교회의 명예를 얼마나 훼손했는지 절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James Kirk, *The Second Book of Discipline*, 208쪽 144번 각주에서, 커크는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는 적어도 1574년까지 집사도 교회법정에 참석하였고, 제네바의 개혁자 테오도르 베자도 1576년 스코틀랜드 교회법정에 집사가 참여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주장한다.

45 *Second Book of Discipline*, 544. 제네바교회의 헌금 사용 원칙에 대해서는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1559), ed. John T. McNeill, trans. Ford L. Battles,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Vols. 20-21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0), IV권, 4장, 7절을 참고하라. 집사들은 교회의 헌금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 사용했는데, 성직자들의 사례,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 교회 수리와 유지를 위한 비용, 가난한 외국인과 내국인을 위한 비용으로 구분되었다. 16세기 제네바의 구제와 복지에 관해서는 박경수,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의 사회복지 사상: 루터와 칼뱅을 중심으로," 『교회의 신학자 칼뱅』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9), 263-310을 참고하라.

치리회인 당회, 지역에 속한 교회들의 연합 회의체인 노회, 전국적인 차원의 회의체인 총회, 여러 국가들을 포괄하는 회의체인 국제총회가 그것들이다.[46] 이처럼 장로교회 정치체제는 당회, 노회, 총회, 국제총회로 확장되는 동심원적 구조이며, 각 회의체는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고 치리와 시찰을 행한다. "모든 회의체의 최종 목표는 먼저 신앙과 교리를 일체의 오류나 부패로부터 순수하게 지키는 것이고, 둘째로 교회 안에 품격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47]

장로교회 정치체제에서 모든 회의체의 구성원은 목사, 교사, 장로로 이루어진다. 이들은 넓은 의미에서 모두 장로라 불릴 수 있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회의체는 장로회라 불린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제1치리서』에서는 집사도 당회의 교회법정에 참석하여 회원으로서 역할을 하였지만, 『제2치리서』에서 집사는 어떤 회의체에서도 법적인 회원권을 갖지 못한다. 칼뱅의 제네바에서도 집사는 교회 회의체에서 회원권을 갖지 못했다. 따라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정치체제의 기원을 연구한 바 있는 맥그레거는 『제2치리서』에서 집사의 위상이 약화된 것이 제네바 교회헌법의 영향이라고 주장한다.[48]

『제2치리서』에서 개교회의 장로회인 당회의 임무는 "관할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선포되고, 성례가 올바르게 거행되고, 치리가 바르게 행해지고, 교회의 재산이 어떠한 부정도 없이 분배되도록 유념하는 일이다."[49] 또 교회의 일꾼을 임명하고 책벌하며 해임하는 권한도 갖는다. 이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품위 있는 질서를 세우게 된다.

노회는 지역의 목사, 교사, 장로들이 함께 지역의 공동 관심사를 논의하기 위해 모인 회의체이다. 『제1치리서』와 비교할 때 『제2치리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시찰감독제의 폐지와 노회 역할의 강화이다. 『제1치리서』에서 복음전파

---

46 *Second Book of Discipline*, 539. 『제2치리서』는 개교회가 회중이 적어 독자적으로 당회를 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서너 개의 교회들이 연합당회를 구성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Second Book of Discipline*, 540.

47 *Second Book of Discipline*, 539.

48 Janet G. MacGregor, The Scottish Presbyterian Polity, 116, 123-24. 맥그레거에 따르면 당시 프랑스 개혁교회에서는 대회에 집사가 함께 참석하였고, 비록 교리적인 문제에서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었지만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는 투표권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스코틀랜드에서는 집사에게는 처음부터 회원권이 없었는데 이것은 제네바의 영향을 암시한다고 지적한다.

49 *Second Book of Discipline*, 540.

의 시급성과 목회자의 절대 부족이라는 환경에서 어쩔 수 없이 한시적으로 채택했던 시찰감독 직무가 『제2치리서』에서는 사라지고 그 역할을 지역 노회가 감당하도록 하였다. 개교회의 법정이 잘못 처리하거나 부당하게 판결했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있다면 당사자는 노회의 법정에 항소할 수 있었다. 노회의 결정조차 받아들일 수 없다면 총회에 항고할 수 있었지만, 총회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이었다.[50] 맥그레거는 이러한 항소 제도는 프랑스 개혁교회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51] 노회 역할의 강화야말로 『제2치리서』 나아가 장로교주의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총회는 한 국가 안의 모든 교회를 포괄하는 다시 말해 보편장로회라 불릴 수 있는 회의체이다. 총회는 노회와 당회가 어떤 일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에 관한 규칙을 정하며, 영적통치와 세속통치가 뒤섞여 교회에 해가 되지 않도록 국가와의 관계설정에 유념해야 하며, 전체 교회의 안녕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책임을 진다.[52] 다른 회의체와 마찬가지로 총회의 회원권은 목사, 교사, 장로에게 한정되었다. 이전에는 귀족들이 총회에 참석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였지만, 『제2치리서』가 승인된 이후에는 귀족들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제안, 청취, 논의에 그쳤다.[53] 이것은 영적 영역에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회 문제에 대한 최종적 권위를 지닌다는 것을 의미한다.

맥그레거는 『제2치리서』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두 근원이 프랑스 교회헌법과 제네바 교회헌법이라 말한다. 프랑스 개혁교회의 영향으로는 장로직의 종신직 가능성,[54] 목회자를 임명하는 권한이 노회에 주어진 것 등을 언급할 수 있고, 제네바교회의 영향으로는 집사가 교회법정의 회원이 되지 못한 것, 사역자들의 동등성 원칙, 회의체가 시찰자를 파송하는 권리를 갖는 점 등을 지적할 수

---

50 Janet G. MacGregor, *The Scottish Presbyterian Polity*, 81.

51 Janet G. MacGregor, *The Scottish Presbyterian Polity*, 82. 맥그레거는 그때까지 프랑스 개혁교회만이 이러한 항소 제도를 두고 있었다고 밝힌다. 그러면서 스코틀랜드의 노회와 프랑스의 대회(French Colloquy)가 기능과 역할 측면에서 매우 비슷하다고 말한다.

52 *Second Book of Discipline*, 542.

53 Janet G. MacGregor, *The Scottish Presbyterian Polity*, 120.

54 Janet G. MacGregor, *The Scottish Presbyterian Polity*, 122. 1559년 프랑스 교회헌법은 장로직이 비록 종신은 아니지만, 교회가 하락하는 한 그 직무를 떠나지 않고 계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반면 제네바는 장로의 직무를 계속할 것인지 매년 새롭게 물어 선출되어야만 했다.

있다. 또한 교회 치리에 있어서 목사와 교사의 숫자가 장로보다 많은 점 등도 프랑스교회와 제네바교회의 영향으로 보인다.[55] 『제2치리서』에서 가장 분량이 많은 장이 회의체에 의한 교회정치 원리를 설명하는 7장이라는 사실은 장로교회 정치에서 이 원리가 갖는 중요성과 가치를 잘 보여준다.

4. 교회개혁의 과제와 목적

『제2치리서』는 마지막으로 11장에서 13장까지 당시 스코틀랜드교회에 잔존하는 옛 폐습이 무엇인지, 어떤 점들을 개혁해야 하는지, 교회개혁이 스코틀랜드 모든 이들에게 어떤 유익을 줄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먼저 『제2치리서』는 당시 스코틀랜드교회의 심각한 폐해를 직시한다. 실제로 교회에서 목회를 통해 섬기지도 않으면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이름뿐인 성직자들은 교회에 해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조롱거리로 만드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한다. 나아가 한 사람이 스무 개 이상의 교회를 맡아 성직록만 챙기고 영혼들을 방치하도록 만드는 성직중임제나 궐석성직제는 반드시 철폐되어야 할 폐습이라고 지적한다.[56] 『제2치리서』는 11장에서 1572년 리스협약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감독 혹은 주교가 특정한 회중을 돌보지도 않고, 다른 목회자들 위에 군림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면서 당시의 허울뿐인 허수아비 주교인 '툴칸 주교'를 비판하고 있다.[57] 더 나아가 1561년 이후 로마가톨릭 성직자에게 예전 수입의 3분의 2를 여전히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법을 폐지하고 그들에게 할당된 몫만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한다.[58] 또한 목회자가 자신들의 책무를 소홀히 하면서 세속의 형사재판에 관여하거나 행정관의

---

55 Janet G. MacGregor, *The Scottish Presbyterian Polity*, 123. 1582년 총회는 교회 치리의 문제에 있어서 장로가 목사와 교사들의 합한 숫자보다 더 적어야 한다고 결의하였다. 1560년 프랑스 교회에서 교리의 문제에 있어서 집사와 장로의 숫자가 목회자들보다 적어야 한다고 결의한 것과 비슷한 측면이 있다. 『제2치리서』에 끼친 프랑스 교회와 제네바 교회의 영향을 요약적으로 살펴보려면 Janet G. MacGregor, *The Scottish Presbyterian Polity*, 129-30을 참고하라.

56 *Second Book of Discipline*, 546-47.

57 *Second Book of Discipline*, 547.

58 *Second Book of Discipline*, 547, 549-50.

영역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고 못 박는다. 동시에 행정관이 교회의 문제에 참견하고 지배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 또한 엄중하게 경계해야 함을 강조한다.[59] 이처럼 『제2치리서』는 당시 스코틀랜드교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어 비판하고 있다.

이어서 12장에서 다음과 같은 개혁의 구체적 항목들을 열거한다.[60] 모든 교구에 한명 이상의 목사를 두어 백성들을 돌보아야 하며, 목사가 여러 교회를 맡아 자신의 책무에 소홀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대학에 충분한 교사를 임명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의 기초를 든든하게 세워야 한다. 당회, 노회, 총회의 모든 회의체는 스스로의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의 행습을 살피고 치리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금권과 권력이 목회자의 선출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며, 합법적 선출과정과 회중의 동의를 통해 일꾼이 세워져야만 한다. 교회의 모든 수입은 네 몫으로 나누어 목회자의 생계, 교회와 학교의 유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구제와 돌봄, 교회의 보수와 공공복리를 위해 사용해야만 한다. 교회의 재정은 회계보고를 통해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13장에서 교회의 정치체제를 올바르게 수립하려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진전시키며,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양심의 평안을 누리고 사는 것"[61]이라고 요약한다. 개혁교회가 언제나 강조해 온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양심의 자유와 평안, 즉 하나님, 공동체,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라도 교회의 영적통치 질서가 바로서야 한다는 것이다. 교회 정치체제와 질서의 개혁은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고, 교회를 든든히 세울 것이며, 모든 이들에게 기쁨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제2치리서』는 경건하고 선한 질서를 바로 세움으로써 스코틀랜드교회가 온 세상의 본보기가 될 것을 희망한다.[62]

---

59 *Second Book of Discipline*, 548-49.
60 *Second Book of Discipline*, 550-53.
61 *Second Book of Discipline*, 554.
62 *Second Book of Discipline*, 554.

Ⅳ. 한국장로교회 직제와 정체 개혁을 위한 제언

한국장로교회의 직제(職制)는 목사, 장로, 집사, 권사로 구성된다. 이것은 개(個)교회 혹은 지(支)교회라 불리는 개별교회를 구성하는 직제이다. 그리고 개교회의 목사와 장로가 모여 당회를 이루고, 개교회 당회의 대표들이 모여 노회, 대회, 총회를 구성하는 정체(政體)를 만든다. 이러한 직제와 정치체제는 16세기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 그 중에서도 개혁파 운동이 시작될 때부터 확립된 전통이다. 정치적으로 볼 때 장로교회의 이러한 집단지도체제는 감독한 사람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감독제도나 모든 회중에게 권한이 분산되는 회중제도와 구별된다.

16세기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직제와 정체를 담고 있는 『제2치리서』를 연구하면서 자연스레 한국장로교회의 현실을 생각하게 되었다. 현재 한국의 장로교회도 다양한 교단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필자가 몸담고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를 염두에 두면서 직제와 정치체제의 개혁 방향을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직제와 정치체제는 복음의 본질이라기보다 '아디아포라'(adiaphora) 즉 비본질적인 영역에 속한다. 다시 말해 어떤 직제와 정체를 가질 것인가 하는 것은 각 지역의 문화와 전통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지닌다는 뜻이다. 교회사에서는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일에는 사랑을'이라는 표어를 소중하게 간직해왔다. 우리는 복음의 본질이 아닌 제도의 문제에서는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장로교회의 토대를 놓은 칼뱅조차도 잉글랜드와 폴란드의 지도자들에게 편지하면서 그 나라에서 감독제를 선호한다면 굳이 장로제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유연성을 보였다. 따라서 직제와 정체의 문제 때문에 사생결단하려는 식의 태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둘째, 직제와 정치체제는 주님의 몸인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것이다.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그 직분의 목적은 교회의 덕과 유익을 위한 것이지, 그 직분 자체가 목적이 아니며 더욱이 계급이나 서열이 아니다.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인 만인제사장설에 비추어 보더라도 직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각기 다른 기능이지 신분이 아니다. 최근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에서 논란이 된 목사 임직식에서 장로의 역할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것이 주님의 몸인 교회에 얼마나 덕이 되는가 하는 것이 초점이 되어야 한다. 목사들에게 묻는다. 장로가 목회자 후보생에게 안수를 하는 것이 무슨 그리 큰 문제라도 되는가? 장로들에게 묻는다. 자신들에게 부여된 책임의 무거움을 알고 있는가, 목회자 후보생에게 안수를 하는 것이 무슨 특권이라고 생각하는가? 16세기 제네바의 개혁자 칼뱅은 목사 임직식에서 안수 의식이 중세 로마교회의 미신적 예식으로 변질되었으니 안수를 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주장했다.[63] 스코틀랜드 『제1치리서』도 목사 임직에서 안수가 필수요건이라고 말하지 않았다.[64] 임직에서 안수 행위 자체가 '아디아포라'라는 것이다. 본질은 내가 맡은 직분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고 있는가이다.

셋째, 한국장로교회는 노회의 역할과 중요성을 복원해야 한다. 장로교회와 회중교회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지점이 바로 상위 회의체의 권한을 얼마나 실제적으로 인정하는가이다. 회중교회는 '자발성에 기초한 자치 조직'이기에, 노회와 총회 같은 상위 공의회들은 협력관계일 뿐이며, 실제로는 개교회가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주체이다. 반면 장로교회는 개교회의 당회, 노회, 대회, 총회의 정치 형태를 채택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노회가 중심적 역할을 담당한다. 오늘 한국장로교회에서 개교회주의의 병폐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모두 노회가 본래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목회자의 개인주의를 극복하고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노회가 제 몫을 감당해야 한다. 16세기 제네바교회와 스코틀랜드교회와 미국장로교회의 목사회, 성경연구모임 등은 개별성과 공동체성의 조화를 이룬 예로써 21세기 한국장로교회에도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넷째, 총회의 총대 수를 과감히 줄이고, 총대 구성에서 '다양성'과 '포용성'의

---

63 John Calvin, "Draft Ecclesiastical Ordinances(1541)," *Calvin Theological Treatises*, trans. J.K.S. Reid (London: SCM Press, 1954), 59.

64 James K. Cameron, *The First Book of Discipline*, 102: "비록 사도들이 안수를 행했지만, 이제 기적은 그쳤기 때문에 우리는 안수 예식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 먼저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의 총대 숫자는 1,500명으로 그 인원이 너무 많다.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의사결정의 비효율성은 말할 것도 없고 총회 장소를 구하는 것조차 힘들고 제한적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수도 300명이다. 이것도 많다고 수를 줄여야 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미국장로교회(PCUSA)의 총대도 600명 정도이다. 그런데 우리는 무슨 이유로 총대가 이렇게 많아야 하는가? 각 노회마다 봄 노회 때면 총회에 파송할 총대 선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이 얼마나 볼썽사나운가! 그나마 2018년 103회기 총회에서 2020년부터 총대를 1,000명으로 감축하기로 결의하여 다행이라 여겼지만, 2019년 104회기 총회에서 곧바로 취소 결의를 하였다. 참으로 손바닥 뒤집듯 쉽게도 총회 결의가 뒤바뀌는 것을 보면서 과연 총대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을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총대의 구성이 너무 치우쳐 있다. 2017년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 총대 1,500명 가운데 여성은 고작 17명으로 1.1%에 불과하다. 이것은 양성평등을 추구하는 세계교회의 동향이나 일반 사회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대단히 후진적일뿐 아니라 교회의 성숙에도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2017년 총회에서 앞으로 68개 노회에서 총대 가운데 여성을 적어도 1명씩 포함시킬 것을 결의한 것은 놀라운 진전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결의와는 달리 2018년 여성 총대는 고작 30명으로 2%에 불과했다. 결의한 대로라면 적어도 68명이 되어야하지만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또한 2019년 104회기 총회에 참석한 여성 총대는 26명으로 오히려 직전 회기보다 감소했다는 사실이 교단 내 양성평등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준다. 더욱이 청년, 장애인, 소수자를 대표하는 총대는 아예 찾아볼 수 없다. 2019년 104회기 총회에서 앞으로 총대의 5~10%를 청년, 부목사, 기관목사 등 소외된 젊은 층이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는 결정을 했지만, 그마저도 기존의 총대 수를 줄여서가 아니라 현재 1,500명의 총대들 외에 별도로 그들을 참석하도록 하겠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교회가 장년 남성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면 당연히 다양성과 포용성의 원칙에 따라 이를 개선해야 한다. 올해 총대의 평균 나이가 62.5세였으

니, 그 회의에서 젊은 세대와 다음 세대의 필요와 요구를 과연 얼마나 담아낼 수 있었겠는가? 앞으로 총대의 풍부한 다양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이 변화는 당회와 노회의 인적구성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다섯째, 신학교에서 목회자 후보생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교수로서의 바람이 있다.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에게 추천서를 써주면서 듣게 되는 애환이 있다. 한국교회에 바라기는 부디 사역자를 고용(雇用)하지 말고 청빙(請聘)해 주기를 바란다. 품삯을 주고 부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고'만큼만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사역자가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의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청빙과정에서부터 애써주기를 당부한다. 또 여성사역자에게도 사역의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는 여성안수를 허용한지 25년이 지났다. 현재 여성 목사는 전체 목회자 중 8.5% 정도이며, 신학교에서 목회자 교육을 받고 있는 여학생은 전체 학생의 25%에 이른다. 이들이 졸업하면 과연 사역지를 구할 수 있을지 항상 걱정이다. 교회는 필요하다면 당분간 여성사역자를 할당제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사역의 배정에 있어서도 차별하지 말고 기회를 제공해주기를 바란다.

V. 결론

『제2치리서』를 자세히 해설한 커크는 편집자의 서문 첫 문장에서 『제2치리서』를 "스코틀랜드 장로교주의에 대한 최초의 명백한 선언"이라고 규정한다.[65] 이것은 『제1치리서』가 로마가톨릭에서 장로교회로 돌아서는 길목에서 상황적 제약 때문에 장로교주의를 온전히 표현해 내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상대적으로 『제2치리서』는 장로교회의 정치 원리를 가감 없이 담아냈음을 의미한다. 존 녹스의 이상이 앤드류 멜빌을 위시한 후배들에 의해 보다 분명하게 열매를 맺게 된 것이다. 1560년 『제1치리서』가 나온 이후 정치적, 종교적 변화, 특히

65 James Kirk, *The Second Book of Discipline*, vii.

1572년 리스협약을 통해 주교제가 다시 도입되려는 상황에서 장로교회의 정체성을 담은 헌법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고, 때마침 1574년 제네바아카데미의 교수로 있다가 스코틀랜드로 돌아온 멜빌의 지도력이 더해지면서 1578년 『제2치리서』가 빛을 보게 되었다. 『제2치리서』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여러 위원회에서 수많은 회의, 검토, 개정을 거쳐 열매를 맺은 16세기 스코틀랜드교회 공동의 유산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제2치리서』는 450여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 시대 교회개혁의 주제와 관련해서도 적합성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장로교회에서 중요한 일차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장로교회에서 제대로 깊이 있게 조명된 바가 없다는 사실이 놀라울 지경이다.

『제2치리서』는 교회정치와 세속정치의 권한과 책임을 분명하게 구별한다. 교회와 국가는 서로를 침해하지 말아야 하고, 서로 다른 영역에서 각자의 주권을 가지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동일한 목적을 위해 헌신해야 하는 상생의 관계이다. 또한 『제2치리서』는 교회의 직제인 목사, 교사, 장로, 집사가 어떤 사람이며,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경계설정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기며 세우는 책무를 감당하도록 이끈다. 특히 장로교회의 중요한 원리인 회의체를 통한 공동의 정치체제의 원리와 실제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교회의 개혁과제를 조목조목 제시함으로써 교회가 나가야 할 미래의 방향설정을 하고 있다.

교회사에서는 직제와 정체가 꼭 필요한지에 대한 논쟁이 수차례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일부 사람들은 교회의 조직과 제도가 오히려 교회 내에서 성령의 자유로운 역사를 제한하고 심지어 훼손시키기까지 한다고 주장하면서, 교회에서는 직제보다 성령의 자유로운 운행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 초대교회 몬타누스주의자들이 그러했고, 근대 초기 소위 '퀘이커'라 불리는 친우회의 입장이 그랬으며, 성령의 역할을 강조하는 신앙공동체들이 대체로 그런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나 조직과 제도가 없거나 약한 공동체는 통일성과 영속성이 떨어지고, 다양성이 자칫하면 무질서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교회 역사를 통해 배웠다. 어떻게 보면 조직과 제도는 필요악과 같은 불가피한 것일 수 있다. 문제는 그 직제와 정체가 사람과 공동체를 살리는 역할을 하는지, 아니면 '조직

의 쓴맛'만을 강요하는 거침돌인지 하는 점이다. 직제와 정체가 불가피하게 요구된다면 그것이 보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복음과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만드는 노력이 중요하다.

한국교회 안에는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넘친다. 필자는 개혁이 그저 구호로만 머물지 않고 구체적인 정책이나 제도로 정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국장로교회의 직제와 정체의 개혁에 관한 실천적인 제안들을 제시하였다. 한국교회의 직제와 정체가 과연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도구가 될 것인지, 아니면 복음의 확장과 경건의 진보를 가로막는 훼방꾼이 될 것인지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있다. 한국교회의 직제와 정치체제가 복음과 생명의 가치를 담는 소박하지만 보배로운 질그릇이 되기를 소망해 본다.

[참고문헌]

Burleigh, J.H.S. *A Church History of Scotland*.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60.

Calderwood, David. *History of the Kirk of Scotland*. III. Edited by Thomas Thompson. Edinburgh: Wodrow Society, 1843.

Calvin, John. "Draft Ecclesiastical Ordinances(1541)." *Calvin Theological Treatises*. trans. J.K.S. Reid. London: SCM Press, 1954.

_____.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1559)*. ed. John T. McNeill. trans. Ford L. Battle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0.

Cameron, James K. *The First Book of Discipline*. Edinburgh: The Saint Andrew Press, 1972.

Donaldson, Gordon. *The Scottish Reform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0.

Kirk, James. *Patterns of Reform: Continuity and Change in the Reformation Kirk*. London: T&T Clark, 1989.

_____. *The Second Book of Discipline*. Edinburgh: Covenanters Press, 1980.

MacGregor, Janet G. *The Scottish Presbyterian Polity: A Study of its Origins in the Sixteenth Century*. Edinburgh: Oliver and Boyd, 1926.

Mason, Roger A. and Steven J. Reid. *Andrew Melville(1545-1622): Writings, Reception, and Reputation*. Surrey: Ashgate Publishing Limited, 2014.

Mitchell, Alexander. *The Scottish Reformation*. Edinburgh: William Blackwood and Sons, 1900.

Reid, W. Stanford. "The Book of Discipline: Church and State in the Scottish Reformation."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Vol. 35 (1972/1973), 35-44.

Row, John. *The True History of the Kirk of Scotland from 1558 to 1637*.

Edinburgh: Wodrow Society, 1842.

van Wyk, Jurgens Johannes.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Offices according to the Presbyterian Tradition of Scotland*. Kachere Theses no. 7, Zomba: Kachere Series, 2004.

김중락.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사』. 서울: 흑곰북스, 2017.

박경수. "16세기 제네바 교회의 목회자 선발과 훈련에 관한 연구." 『한국교회를 위한 칼뱅의 유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4.

_____.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의 사회복지 사상: 루터와 칼뱅을 중심으로." 『교회의 신학자 칼뱅』.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9.

_____. "스코틀랜드 『제1치리서』에 나타난 장로교회 정치체제의 근간." 「신학논단」 97 (2019), 41-70.

_____. "존 녹스: 하나님의 나팔수." 『개혁교회, 그 현장을 가다』.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8.

이승구. "스코틀란드 교회 『제2치리서』(1578)에 나타난 장로교회의 모습." 「신학정론」 31/2 (2013), 188-224.

[Abstract]

A Proposal for Reform of the Polity of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seen through the *Second Book of Discipline* of the Scottish Presbyterian Church

Gyeung Su Park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Professor, Historical Theology)

This paper analyzes the historical background and contents of the *Second Book of Discipline* of Scotland, which contains the core of Presbyterianism, and then puts forward suggestions for the reform of the policy of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based on its spirit. The reason why I have a special interest in the Presbyterian office and policy is that research on the *Second Book of Discipline*, namely the first presbyterian constitution, was not conducted properly in the Korean Church, where Presbyterian Church accounts for more than 70 percent of the Protestant Church, and the Church is facing a serious crisis due to disorders and conflicts over the church's office and policy.

I will first look at the political and religious situations in which the *Second Book of Discipline* came out, and then trace the process from 1560 when the *First Book of Discipline* comes out to 1578 when the *Second Book of Discipline* comes out. Through this research, we will identify which inevitability the *Second Book of Discipline* was created from. It will then introduce and analyze the core contents of *Second Book of Discipline* under the subject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hurch policy and civil policy, the church offices and their functions, church assemblies and their role, and the task and purpose of the church reform. And finally,

reflecting on what legacy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should inherit and protect from the Presbyterian Church in Scotland, it will present practical suggestions on the reform of office and policy of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Key Words: Scotland, Second Book of Discipline, Office, Polity, Andrew Melvill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